

광주 어음 부도율 3년 연속 전국 '최고'

중기 대출금 4조8501억원...연체율도 2년 연속 전국 평균 상회 1~11월 대출금 1년 전보다 1조8792억원 증가...증가폭 역대 최고치 어음부도율 0.54% 평균 9배...대출금 70%가 운영비 '급한 불끄기'

지난해 광주지역 중소기업 대출금은 4조8501억원으로, 통계를 낸 이후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속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어음부도율은 광주가 3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어음부도율은 0.54%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광주 어음부도율은 2018년(2.20%), 2019년(1.57%)에 걸쳐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전국에서 가

장 높다.
전국 평균(0.06%)의 9배이자 광주 다음으로 어음부도율이 높은 울산(0.44%)보다도 0.1%포인트 높다. 특정한 업체가 상거래와 관계없이 발행한 수백억대 어음이 통계를 영향을 미쳤다는 게 한국은행 측은 설명이지만 광주 중소기업계의 위태로운 자금사정을 반영한 지표는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1월 광주 중소기업들은 예금은행에서 3조1884억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서 1조6617

억원 등 총 4조8501억원을 빌렸다.
중소기업 대출금은 1년 전(2조9709억원)보다 1조8792억원(63.3%)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 폭은 통계를 낸 지난 2014년 이래 가장 높다.
1~11월 기준 광주 중소기업 대출금은 ▲2014년 1조3534억원(은행 1조2191억·비은행 1343억) ▲2015년 2조2722억원(은행 2조1629억·비은행 1093억) ▲2016년 1조8161억원(은행 1조2333억·비은행 5828억) ▲2017년 1조2370억원(은행 5072억·비은행 7298억) ▲2018년 1조5400억원(은행 8303억·비은행 7097억) ▲2019년 2조9709억원(은행 1조6773억·비은행 1조2936억)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기 대출금은 전년 대비 2조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문제는 코로나19 타격으로 대면 서비스를 해온 소상공인·중소기업 위주로 대출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위주로 대출이 주를 이뤘다.
지난해 1~11월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금 3조1884억원 가운데 69.1%에 달하는 2조2039억원이 인건비와 재료비 등 운영자금 명목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중소기업 대출금에서 운영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43.8%, 2015년 40.6%, 2016년 30.5%, 2017년 9.2%, 2018년 53.0%, 2019년 62.5% 등으로 지난해 운영자금 비율이 역대 최고를 나타냈다.
광주지역 중소기업 대출상환 연체율은 1년 10개월 연속 전국 평균 연체율을 웃돌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광주 중소기업 연체율은

0.50%로, 전국 평균(0.45%)을 상회했다.
김재영 한은 광주전남본부 과장은 "기업대출도 코로나19 관련 정책자금 지원 등으로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크게 확대됐다"며 "기업의 업황이 복원되는 데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실무부서 지원 과정에서 늘어난 대출자금이 향후 금융부문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책당국은 경기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정교화해야 한다"며 "일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에 정책자금 공급 확대, 원리금 상환유예 추가 연장 등의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회훼능가 돕는 '꽃피는 명절 만들기' 8일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꽃피는 명절 만들기' 행사에서 직원들이 꽃을 구매하고 있다.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최현배 기자 choi@



광주은행, 31사단 위문금 전달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왼쪽)은 지난 5일 설 명절을 맞아 향토부대인 제31향토보병사단(사단장 최순건)을 방문해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광주은행 제공>

aT농식품유통교육원, 비대면 교육 강화

올 7840명 양성 계획

경기 수원시에 있는 aT농식품유통교육원이 올해 비대면 교육 운영을 강화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농식품유통교육원이 교육과정과 운영 방식을 대폭 개편해 오는 16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양성 계획인 전문인력은 총 7840명이다. 비대면(언택트) 유통, 4차 산업혁명, 지속가능경

영 분야 교육을 강화해 19개 과정이 신설되는 등 총 79개 과정이 운영된다.
온라인유통전문가 육성을 위해서는 ▲농식품 온라인유통경영인과정 신설 등 6개 과정(260명) ▲비대면 유통·수출마케팅 등 온라인 무료강좌 등이 확대됐다.
4차 산업혁명시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5개 실무과정이 신설됐고, 지난해 농수산물조급법 개정에 따른 자조급 인력양성과정도 새로 생겼다.
교육원은 비대면 교육(edu.at.or.kr)을 활성화

하기 위해 온라인 전용강의실을 만들고, 실시간 쌍방향교육 등 수요자 중심 방식을 도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
| 코스피 | 3091.24 (-29.39) |
| 코스닥 | 960.78 (-6.64) |
| 금리(국고채 3년) | 1.001 (+0.019) |
| 환율(USD) | 1119.60 (-4.10) |

농협은행, 전남도 소상공인 지원 10억원 특별출연

전남도 '소상공인 지원 캠페인'에 지역 금융기관이 동참한다.
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는 8일 전남도청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식을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농협은행은 협약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10억원을 재단에 특별 출연한다. 전남 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비용 우대 및 보증료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
농협은행은 특별출연금 10억원을 재원으로 총 120억원 규모 보증부대출을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65억원을 특별출연했다. 이번 120억원 지원 예정액을 포함해 총 1000여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